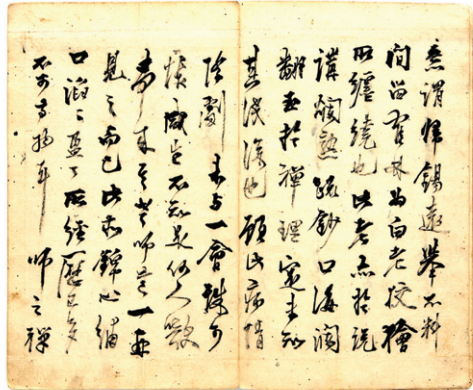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백파공신의 <<선문수경>>에 드러난 선리의 모순을 지적한 초의의 <<선문사변만어>>는 조선 후기 불교계의 가장 두드러진 선리 논쟁이다. 이 논쟁에는 추사와 신현 같은 유학자들도 참여하여, 초의를 옹호하였는데, 이는 추사의 <변광증15조>와 신현의 <담초의선사서(答草衣禪師書)>를 통해 확인된다. 불교계 또한 이 논쟁에 가세하여, 백파의 문손인 우담홍기가 <<선문증정록>>을 지어 백파와 다른 선의 입장을 드러냈고, 설두유형은 <<선원소류>>를 저술, 백파의 선리를 옹호함으로써 이 논쟁은 더욱 가열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어 범주사 진하측원이 다시 백파와 우담의 선리를 비판한 <<선문재정록>>을 저술, 초의의 선리를 옹호하였다. 후일 학계에서는 이 논쟁이 불교계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인 영향력이 미미했던 불교계에서 선리 문제를 표면화하여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완당전집>>(여초의) 11신에는 추사가 백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그의 편지를 살펴보자.

그대가 멀리(대둔사로)돌아갔으리라 여겼기에 그 동안 학림암에 있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교활한 백파노승에게 얽힌 것이로군요. 이 노인(백파)은 강설(講說)이 화려하고, 소초(疏抄)에도 익숙하며 구변이 바다를 뒤집을 만하지만 선리에 대해서는 진정 그 깊이를 모르겠습니다. 지난날을 생각해보니 나의 병세가 깊어져 한 번도 만나질 못했으니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조카 같은 가까운) 그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모르셨던가요. (백파) 그 노승이 글을 가지고 와서 한 두 번 보았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시와 문장에)제주

추사·신현, 초의의 선리 옹호



<추사문타첩> 추사친필본

가 뛰어나고, 도도하고 당당하며 경험한 것도 이미 많아서 일일이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대의 선은 부처에서 연원된 것이고, 또 대둔사에서 연원한 것입니다. 이 외에 (참고할 만한) 다른 선이 없는데, 어찌 행장을 꾸리지 않으십니까. 여기에서 보낼 작은 물건이 있습니다만 장마철이라 보낼 인편이 없군요. 날이 개이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계획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 병세는 차도가 없습니다. (이

것도) 또한 선의 한 경계일 뿐입니다. 팔이 둘다리처럼 무거우니 또한 어찌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意謂歸錫遠舉 不料間留鶴林 爲白坡老狡翁所纏繞也 此老亦於說講爛 熟疏? 口海爛翻至於禪理 寔未知其淺深也 顧此病情際劇 未與一會殊可恨 咸生不知是何人歟 帶來其老師書一再見之而已 此等 錦心繡口 滔滔盈盈 所經歷已多 不可方物耳 師之禪在金仙 又在頭輪 外此更無禪耳 何當理裝 此有奉送之微物 雨中無以寄去 待晴再圖亦佳 賤恙不增不減 亦一禪耳 腕如石杠 亦得悵皇 不式

이 편지는 <추사문타첩>에도 수록되었다. 추사가 “그 동안 학림암에 있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편지는 1838년경에 쓴 것이라 짐작된다. 이를 통해 초의가 금강산을 유람 한 후, 학림암에 머물며 백파와 선리를 잠구고 있었음이 자명해졌다. 이러한 상황을 간파한 추사는 “그대의 선은 부처에서 연원된 것이고, 또 대둔사에서 연원한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선이 없는데, 어찌 행장을 꾸리지 않느냐”하며 초의의 귀사(歸寺)를 재촉한다. 아무리 백파의 강설이 화려하고, 화엄이나 선문에도 밝아 소초(疏抄)에도 익숙한 인물이지만 선리의 깊이를 모르겠다는 것이 백파와 초의의 관계가 함생(咸生)같은데 어찌 그 속을 모르느냐는 것이다. 함생은 죽림철현의 완적과 완함에서 연유된 것. 삼촌과 조카 같은 백파와 초의, 이들의 불가(佛家)관계를 이리 표현한 것. 연구의 연의도 추사이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불교 살리기 첫걸음 삶의 현장속으로”

청보리회 김재영 법사

“부처님, 오늘 저희들은 새로 태어났습니다. 맑고 순결한 보리씨앗으로 맑습니다. 이 보리 씨앗을 가꾸고 키워 이 땅에 전파하겠습니다. 황량한 이 삼천리강토 동포들의 가슴에 거룩한 보리씨앗을 전하는 불사에 신명을 다 바치겠습니다.”

1970년 7월 18일 제헌절 이튿날 서울 동덕여고 유정에 학생대표의 발원문 낭독과 함께 200명의 여고생들은 사홍서원을 함장했다.

향후 전교생 절반에 육박하는 700명이 가입한 동덕불교의 신화이자 청보리 전설로 불린 동덕여고 불교학생회인 청보리회의 탄생이었다.

1970년대 황량한 한국불교에서 청보리회는 일대 사건으로 다가왔다. 전국을 통틀어 불교학생회가 10여 곳에 불과하던 시절, 200여 종교생 자녀의 탄생은 한국불교 미래를 밝히는 기폭제가 됐다.

청보리회 탄생 이면에는 당시 동덕여고 교사로 봉직하고 있었던 김재영 법사의 노력이 있었다. 김 법사는 불교는 믿으려해서 믿는 것도 아니려나와 젊은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더욱 그렇기 때문이라고 또 다른 방편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습시다.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어요. 찬불가도 만들었고 봉사활동 모임, 역사탐방 클럽 등 동아리도 만들어서 아이들을 청보리회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선배들이 나서서 후배들을 끌어당기니 절로 규모가 커졌어요.”

43년이 지나 김재영 법사는 “순결한 보리의 씨앗, 깨달음의 씨앗이란 의미로 지어진 청보리는 다른 청소년 포교의 붐을 일으켰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동덕여고는 종립학교가 아니었다. 하지만 청보리회가 창립되며 바로 법회가 개설됐다. 토요일이 되면 아이들은 새벽같이 달려와 미명 속에 촛불을 밝히고 스님들을 기다렸다. 이는 1980년대 까지 활발히 진행됐다. 매달 한 번씩 마지막 토요일에 진행되는 초창법회에는 당시 불교계 선지식인 석주, 광덕, 정무 스님 등이 법사로 나섰으며 김한천, 김어수, 이종익, 선진규 등 포교사들도 가세했다. 또 목성배, 권기중, 정병조 교수 등 당시 유명 불교학자들도 청보리회를 지도하며 이끌었다.

김재영 법사는 “평범한인 조병무 선생이 나서 서정주, 박목월, 이원수, 김성동 선생 등을 모셨으며, MBC 강영숙 아나운서, 이기영 박사 등도 기꺼이 청보리회를 찾아와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셨다”고 말했다.

청보리회는 동덕불교연합창단을 구성해 청소년 예술포교에도 일대 획을 긋는다. 작곡가 서창업, 반영규 선생 등이 이때 음성포교에 힘을 보탰다.

“1973년 반영규 선생 작업실서 썼이 처음 만난 후 본격적인 찬불가 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기투합했습니다. 나와 반영규 선생이 글을 쓰고 서창업 선생이 곡을 만들면 아이들이 함께 불렀지요.”

이렇게 나온 노래가 ‘오라 친구여’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홀로 피는 연꽃’ 등이다. 동덕연합창단단은 당시 TV 출연을 비롯해 어린이대공원, 육군사관학교 등에서도 합창공연을 진행했다. 여의도 최초의 제등행렬 당시에도 무대서 노래로 봉축한 이들도 바로 연꽃합창단이었다.

당시 청보리회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 중 절반가량은 무교이거나 기독교 학생들이었다. 김재영 법사는 “불교학생회 선배들이 열정을 갖고 지도했지요. 만일 신입생들이 입학하면 일일이 하나씩 찾아다니며 학회 가입을 권유하곤 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이런 활동은 대학불교연합회를 통해 더욱 불을 지폈다. 동덕여고 졸업생들이 여러 대학에 진출하며 저절로 대불련 활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먼저 창립 당시 학생대표였던 유정에 씨가 동덕여대 불교학생회를 창립하고, 이어 어순아 씨가 성신불교학생회를 만들었다. 또 김복순 씨 등이 고려대 학생회를 활성화시킨데 이어 서울대, 한양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중앙대 등 여러 대학 불교학생회가 속속 생겨나면서 중흥기를 맞는다. 청보리회가 시작한 청보리 운동은 한국불교의 미래가 된 것이다.

자발적 동기 부여가 중요 7~80년대 뜨겁게 달아오른 불교 중흥의 불길이 90

년대 들어서며 사그라진 이유가 무엇일까. 김재영 법사는 자발적 동기의 상실이 주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7~80년대에는 불교세가 기독교 세를 능가했습니다. 각 대학마다 제일 인기 있는 동아리가 불교 동아리였습니다. 청소년교화연합회, 대불청, 대불련 등의 단체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인 거죠. 당시에는 재가단체들도 많았습니다. 원각회, 달마회, 관음회 등도 수백명이 모이던 단체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없어지거나 활동이 미미합니다.”

김재영 법사는 승속이 혼연일체가 된 것이 자발적 동기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석주 스님, 광덕 스님 등 당시 포교현장의 일선에 있던 스님들은 출세기의 높낮이가 없었습니다.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신명을 다하니 절로 흥할 수밖에요.”

김재영 법사는 90년대 들어서며 조계종단이 분규사태를 겪으며 체계가 잡혀가는 이면에 위상 강화를 위해 출가승들의 권위주의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스님들 중심입니다. 재가자들은 기도만 하느라 바쁘고, 특히 법사들의 역할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불교는 본질적으로 자발적 동기에 의한 것입니다. 권위주의를 버려야 다른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있지요.”

김 법사는 <대변연변경>에서 부처님께서 ‘나는 상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며 후계자 문제를 묻지 말라고

동덕여고 200명 청보리회 결성

황무지 같던 불교터전의 씨앗돼

1980년대까지 토요일법회 활발

석주·광덕 스님 등 법사로 나서

퇴직후 불교대학 등 강의·집필

신행경험 100여개 불교카페에 올려

“우리 시대 유일한 해법은 불교”

불교중흥위해선 보시행 생활화돼

하신 대목을 예로 들었다. 김 법사는 “부처님께서는 일체 권위주의를 버리셨고, 승단 지도자로 추앙되는 것도 거부하셨다”며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신 다음 나온 말이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자등명 범등명’”이라고 말했다.

김 법사는 이어 “이웃 종교의 유신적, 계급적인 것이 싫어 불교를 찾아 오지만 판매한 권위주의를 보며 다시 불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스님들에 대한 존중도 자발적 동기에 의해 때 진정으로 우리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법사는 “청보리회의 활동도 어린 아이들이지만 묵묵히 걸어 나서는 후배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현장 지도자들의 자발적 동기를 살리는 것이 불교를 살리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범구경> 문구 하나로 발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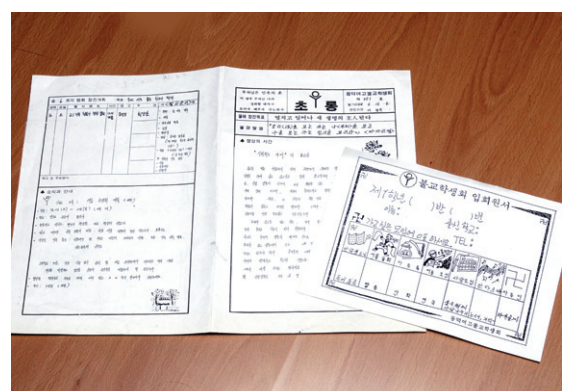
그렇다면 김재영 법사가 불교를 시작한 자발적 동기는 무엇일까? 불교집안서 태어난 김재영 법사가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기에는 책 한권의 힘이 컸다. “어렸을 때는 친구 따라 마산포교당서 고암 스님 법문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불지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불교를 널리 알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1967년부터입니다.”

오랜 방황의 대학생기를 거쳐 동덕여고에서 교편을 잡게 된 김재영 법사는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서 <범구경>을 접하게 된다.

“<범구경>의 첫 장을 펴니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간다. 모든 것은 마음이 주인이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겁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불교 가르침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동덕여고 축제에서 탈춤을 추는 불교학생회내 탈춤아리학생들



당시 입회원서와 월보, 입회원서의 다양한 동아리가 눈길을 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http://www.shcandle.com)

자연을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사자발약썩양초

① 약썩초	90cm×90cm
② 약썩초 연봉 원기둥	7.0××34cm
③ 약썩초 돈타레	5.6××27cm
④ 약썩초 밀대	4.7××25cm
⑤ 약썩초 1호	5.9××18cm
⑥ 약썩초 2호	5.9××14cm
⑦ 약썩초 3호	4.7××13cm
⑧ 약썩초 4호	4.7××10cm
⑨ 약썩초 4호 반야심경	4.7××10cm
⑩ 약썩초 3호 반야심경	4.7××13cm
⑪ 약썩초 2호 반야심경	5.9××14cm
⑫ 약썩초 1호 반야심경	5.9××18cm
⑬ 약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호랑이, 용)	
⑭ 약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호랑이, 용)	
⑮ 약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금호랑이, 금용)	

한봉밀납양초

① 밀납초	90cm×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34cm
③ 밀납초 돈타레	5.6××27cm
④ 밀납초 밀대	4.7××25cm
⑤ 밀납초 1호	5.9××18cm
⑥ 밀납초 2호	5.9××14cm
⑦ 밀납초 3호	4.7××13cm
⑧ 밀납초 4호	4.7××10cm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10cm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13cm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14cm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호랑이, 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금호랑이, 금용)	

신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 도자기 인동 • 인동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New 꽃라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김재영 법사는**… 김재영 법사는 서울대 사범대학 역사학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졸업했다. 서울 동덕여고에서 33년간 봉직하며 1970년 이래 동덕 불교학생회와 청보리회를 조직해 현재까지 40여년 동안 지도 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연합회, 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활동을 지도하는 한편 동방불교대학교 교수로도 여러 강의에 나서고 있다. 2006년 대원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우리도 부처님같이>, <롬비니에서 구시나기라까지>, <초기불교개척사>, <붓다의 대중건설운동> 등 다수가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1970년 청보리회를 조직한 그는 불교의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1973년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입학한다. 당시 지도교수가 뇌허 김동화 박사였다.

“대학원 진학 동기는 너무 불교를 몰라서였습니다. 마음이 현장에 있었기에 학문이 미흡했습니다. 당시 교수님들이 많이 이해해주셨지요.”

김재영 법사는 대학시절 배운 사학과 역사학이 불교를 신심을 떠나 종교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석사를 마친 그는 1978년 현장에서의 경험을 담은 책을 썼다. 바로 <롬비니에서 쿠시나기라까지>다. 이 책에서 그는 부처님을 기존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설명했다. 현장에서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중심으로 포교에 대해 접근한 최초의 책이었다.

청보리회 활동을 계속 펴온 그는 현재 강연 내용을 불교 카페 100여 곳을 통해 불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청보리회 회원들은 붓다 메시지를 자처하며 이를 돕고 있다.

1999년 30여년의 교직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한 김재영 법사, 불교대학 등에서 강의하며 불교가르침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그는 인터뷰 내내 불교계 현실이 안타깝다며 열변을 토했다.

**현장에서 뛰는 불교인 늘어야**

“뜨거웠던 개혁의지, 이 땅의 불교,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꿈꾸던 시대정신, 현장에 직접 뛰어들는 현장의식 등이 당시 불교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현재 불교를 돌아보며 이런 현장, 시대정신이 부족한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김재영 법사는 “그때는 특히 스님들이 재가자들과 함께 었다”며 “석주 스님, 광덕 스님 등이 우리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전법에 나서시니 절로 흥이 났다”고 말했다.

김 법사는 현재 불교계가 교화 중심이라며 이는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불교가 현재 쇠퇴하는 요인 중 첫 번째가 교학주의입니다. 초기불교니 대승불교니 하지만 본래 불교는 이론적 학문적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현장을 다니시며 직접 삶으로 대중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김재영 법사는 부처님이 연기법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연기적 삶을 보인 것이며 무아를 실천한 것이 아니라 무아적 삶을 사시는 것 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상좌부 아비담마에 들어서 부처님 가르침이 교리화되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거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경전·교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것만 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배웠으면 나와서 써먹어야 합니다.”

김 법사는 현장에서 이웃종교 성직자들의 활동과

불교에서 스님들의 활동이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김 법사는 “교회의 경우 목사가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전화해서 상담을 해줍니다. 상이 나는 등 큰일이 터지지만 밤새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절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일부 임원급 신도를 제외하고 신도들의 집에 일이 있을 때 스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법사는 스님들이 산문 밖에 나가 대중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것이 불교살리기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스님들이 문 밖에 나와서 대중들에게 먼저 손잡고 인사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부터 나와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 손잡아주고 또 챙깁니다. 이런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어 김 법사는 선정주의에서도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법사는 “선방에 가면 위빠사나, 간화선 등 마음을 본다고 앉아있다”며 “마음을 보면 그 것을 밖에서 회향해야 하는데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나친 출가우월주의로 인해 재가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말했다. 사찰 운영에서부터 때달음의 단계까지 모두 스님 위주라고 지적했다.

“우리 시대 유일한 해법은 불교가 될 것입니다. 교학도 좋고, 참선도 좋고, 출가주의도 좋습니다. 다만 잘못된 방식으로 하니 비판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경전 읽고, 참선하면 현장이 살아납니다.”

**재가자는 불자역할 다해야**

김재영 법사는 재가자들이 진정으로 불교 중흥을 바란다면 한달에 만원씩이라도 보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영 법사는 ‘자비의 수레꾼’ 단체를 조직해 현재 캄보디아 아이들의 학교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비의 수레꾼’은 2012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안공했다.

김재영 법사는 “한달에 만원씩 내면 캄보디아 아이 한명을 학교에 보낼 수 있으며 아프리카 아이를 한달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법사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은 보시행 하나가 불교를 살린다”고 말했다.

김 법사는 또 “불교를 살리려면 불자들이 1년에 1명씩 불자만들기를 전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신명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에 앉아서 오는 사람을 포교 하지 말고 정말로 불자가 아닌 사람을 찾아다니며 1년에 한명씩 불자로 만들면 불교가 삽니다. 선교사들은 7년에 1명씩 선교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만큼 1명 불자로 만드는 것이 힘듭니다. 그들이 피땀 흘려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살아난 것입니다.”

노덕현 기자 noduo@hyunbul.com

**전법일기**

**자식 잃은 두 사람의 보시행**

지난해 12월 24일 나는 신도 대표와 함께 우리 동네 초등학교 네 군대를 돌며 2013년에 중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에게 동·하복 교복교환권을 주었다. 60명의 아이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이었다. 중학교 입학 학생들에게 교복을 준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교복을 지원하기 시작한 때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2011년 1월 어느 날, 40대 중반의 보살님 한 분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내년에는 중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 교복을 좀 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미처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는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라고 했다.

“우리 큰아들이 살아 있었으면 올해 고등학교에 갈 나이인데 여섯 살 때 갑작스런 사고로 잃었습니다.”

늘 씩씩해 보이던 그였지만 크나큰 아픔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말이 이어졌다.

“사고 보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온 식구가 먹고 사는데, 늘 그 애 생각이 납니다. 그 아이에게는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으니 대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몇 명에게 교복을 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2백만 원을 내놓을 테니 스님이 그 일을 추진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의 눈에는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이 메어오는지 금세 목소리가 지 변하고 있었다. 터지는 눈물을 억지로 참느라고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자식 잃은 어머니의 소망을 어떻게 거절하겠는가.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하자고 응낙했다. 내 성

**교복·장학금 후원하며 고통 치유**



그림·박구원

**‘공덕’ ‘무주상보시’ 상관없어  
어려운 이웃 자비 손길이 중요**

격이 다소 즉흥적이어서 무작정 대담을 하긴 했지만 사실 마음 내키는 대로 무턱대고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해 가을, 해마다 적잖은 액수를 장학금으로 내놓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불자님을 만났다. 내년 부터 중학교에 진학하는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주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함께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평소의 두 배 가까운 액수인 5백만 원을 내놓겠다고 대답했다.

사람을 시켜서 인근의 세 초등학교에 연락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몇 명인지 알아보았더니 34명이었다. 때마침 동네 부녀회에서 그

중 10명에게 동복을 해준다고 하였으므로 우리절에서는 24명의 동복과 34명의 하복을 준비했다. 비용은 총 706만원. 그렇게 시작된 교복지원 사업이 올하는 60명의 학생에게 동하복을 지원했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교복을 처음 제안했던 불자가 말했다.

“아이를 잃고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나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항상 묵직한 응어리가 있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고통이 언제나 따라다녔습니다. 교복을 해주고 매월 장학금을 조금씩 내면서부터 조금씩 나아져 이제 화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전 살 것 같습니다.”

“기꺼이 동참한 불자’도 말했다. “자살한 아이로 인해 언제나 슬프고 우울했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장학금을 보시하고 다른 복지 시설에 후원금을 보내면서부터 우울증과 죄책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고 많이 권합니다.”

그들은 보시행을 하고 나서 아픔이 치유되고 행복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뭘까 이유가 있기에 보시가 육바라밀에 포함되었을 것이고 또 가장 먼저 언급되었을 것이다. 나는 신도들이 ‘공덕’을 바라고 하는 보시든, 아니면 아무런 조건 없는 ‘무주상보시’든 그걸 문제 삼지 않는다. 내 관심은 어떡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나, 오로지 그것뿐이다.

한복 스님(제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이제는 방망 연등 설치도 바쁜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흥운사



운장대 인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영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로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